

“성공의 핵심은 소통, 끊임없이 문 두드리세요”



◀◀ 제이에스바이오컴퍼니는 지난해 워디즈 펀딩레이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참석한 김 대표.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YBLN 시티포럼에 참석해 유산균 화장품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있다.



‘성공 신화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2)JS바이오컴퍼니 김완수 대표

자체 균류 개발 박차, 유산균 식품·화장품·펩트드 출시 라인업 확대·해외 교류 ‘적극’ ...연 매출 1천억원 목표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창업, 인적네트워크가 큰 돌파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유산균이 바이러스 저항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관련 건강기능식품, 간식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0월, 김완수 대표(33)는 돌연 다니

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산균 식품 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제이에스바이오컴퍼니를 창업했다.
올해 4년 차 사업가인 김 대표가 이끄는 제이에스바이오컴퍼니는 유산균 연구·개발부터 제품 제조·유통·판매까지 수행하는 바이오 식품 회사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창업 전 유산균의 효과와 활용을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식사로 먹는 음식에 첨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에 일상에 섭취하는 음식에 유산균 접목을 시도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 개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도 면역력이 영향을 주는 등 일상 제품에 유산균을 적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제중소기업협회 회 세계대회(ICSB World Congress)’에서 유산균 식품을 선보였다. 김 대표는 육가공류에 유산균을 첨가하면 단백질, 아미노산, 수용성 지방의 함유량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자체 식품 브랜드인 ‘천유작’을 내놓았다.
올해 4월에는 자체 개발한 유산균 균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지급 예산에 중점을 둔 펩트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유산균 R

&D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에는 자체 유산균을 활용한 화장품도 출시했다.

김 대표는 “거창한 브랜딩이나 디자인을 고집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제품 다양화와 라인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 제품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출에 긍정적인 결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도 눈여겨 보고 있다. 세계 한상대회 산하 기구인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를 통해 한인 사업가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사업에 대한 경험치와 활로를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올해 2월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YBLN 시티포럼에 참석했다.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김완수 대표

있는 사업가들의 경험을 수용하고 현재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광주시 동구와 협약식을 맺고 돌봄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산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젤리를 만드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는 창업의 장점인 ‘사고의 확장’과 ‘인적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대표가 되면서 사람을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다 보니 보다 넓게 생각하게 됐고, 대표가 되면서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한 교류가 사업뿐 아니라 삶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자체 제조 공장을 설립해 직원 100명

이상,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으로 규모를 늘려 영업팀을 만들 정도가 되면 이후에는 연구소기업을 경영하는 등 체계 있는 기업으로 완성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광주 청년들에게 “창업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나이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작게라도 사업을 운영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 후에 창업을 접고 직장을 구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신의 재능과 능력만을 믿고 창업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때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솔기자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설립...영세기업 부담 줄인다

광주경총,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0일 “광주·전남 지역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광주·전남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 활동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벌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진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가중됐다.
이번에 설립된 종합대응센터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경총이 올해 3월28일에 공식발족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의 광주·전남 지역 센터이며,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센터 주요 업무로는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위험성 평가자문 및 개선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 지원 ▲산업안전 매뉴얼·가이드 보급 ▲사

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응센터 설립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법적 요구사항과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3월 내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여름철 26도, 겨울철 20도)
- 불필요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생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은행-목포시, 초복 삼계탕 배식 봉사

광주은행은 10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에메랄드웨딩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 부족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삼계탕 430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배식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목포지역 지점장 및 임직원, 대학학생홍보대사 등 50여명이 함께했으며, 박홍률 목포시장이 동참해 뜻깊은 봉사의 의미를 내놨다.
삼계탕 배식 후에는 기정택, 건강간식, 스포츠타월을 전달하며 어르신들



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여름철 광주, 목포, 순천 등 각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지역 어르신에게 보양식을 대접했으며, 박홍률 목포시장이 동참해 뜻깊은 봉사의 의미를 내놨다. 지역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운전자 실천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인안보건의료재단,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손해보험협회